

전남도의회, 각종 추문...바람 잘 날 없어

제10대 전남도의회가 각종 추문 등으로 벌써 4명이 중도하차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등 바람 잘 날이 없다.

24일 전남지역 정가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비리연루 혐의 등으로 2명이 웃을 벗었고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초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의원은 의원직을 자진사퇴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년·벌금 400만원·추징금 194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의원은 지역 공사업체로부터 관급공사 알선 대가 등의 명목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전남도의원들은 김 전 의원에 대해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논란이 일었다.

최근 양모 의원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양 전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지역구 투표소에서 자신이 속한 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 공직선거법 및 폭력행위 처벌법위반행위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150원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도 선처를 요구하는 전남도의원들의 탄원서 제출이 추진되며 일부 의원은 탄원서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자세한 내용조차 몰라 '묻지마식 제3구 감싸기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도의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우려속에, 의원의 재판은 계속된다.

특히 도의회 수장이 재판을 받고 있어 의회의 위상이 말아 나간다는 지적이다.

임 의장은 이모 보성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4일 순천지방법원 재판에 받는다.

임 의장은 이 군수의 주택부지 매입과정에서 땅을 싸게 판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이와관련, 지난해 12월 검찰이 전남도의회 의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도의회 위상이 크게 실추됐다.

이와함께 최근 전남도의회 또다른 임모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임 의원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1월28일까지 5회에 걸쳐 총 1600부의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지역신문을 통상 이외의 방법으로 전남 한 지역 모 농협과 버스터미널 등지에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지난 5·9대선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에 연루돼 선관위 등에서 조사를 받아 추가적으로 법정행도 예상된다.

벌써 2명 낙마·2명 재판에 넘겨져 “내년 지방선거때 도민들 심판해야”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전남도의회가 추문 등으로 인해 벌써 2명이 낙마한데다, 의장까지 뇌물공여 혐의

로 불구속 기소돼 위상이 말아 나다”면서 “내년 지방선거때 제대로 도민들을 심판할 수 있도록 도민들이 심

판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 총 58명의 의원 중 현재 2명이 사퇴하거나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정당별로 민주 29명, 국민의당 25명, 자유한국당 1명, 민중연합당 1명, 무소속 1명 등으로 구성됐다.

김정환 기자



지쳐가는 수해복구 24일 오전 폭우로 수해를 입은 인천 부평구 주먹가에서 자원봉사자가 빗속 수해복구를 하고 있다.

‘33도 찜통체육관 혼련’에 학부모들 민원 제기

에어컨 없는 실내체육관 학생 운동 문제

광주지역의 한 중·고등학교 운동부 학생들이 찜통 같은 실내체육관에서 혼련을 하고 있어 학부모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2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남대사대부중·고 배드민턴부 학생들이 대회 출전을 앞두고 최근 교내 실내체육관에서 혼련을 하고 있다.

광주지역에 폭염특보가 연일 발령되면서 바깥 온도가 35도를 기록하고 있고, 실내체육관 안도 이와 비슷한 33도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대사대부중·고 실내체육관에는 냉난방기가 설치돼 있었으나 노후화돼 지난해 철거된 뒤 현재까지 설치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이 찜통 같은 실내체육관에서 비지땀을 흘리며 혼련을 하자 지역신문을 통상 이외의 방법으로 전남 한 지역 모 농협과 버스터미널 등지에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지난 5·9대선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에 연루돼 선관위 등에서 조사를 받아 추가적으로 법정행도 예상된다.

족을 이유로 목살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학교 측은 에어컨을 즉각 설치할 수 있으나 전력 사용량에 따른 전기료 부담이 커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남대사대부중·고는 국립학교

로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

광주시교육청은 “하계, 동계 혼련 시 선수 안전을 최우선시하도록 일선 학교에 요청했다”며 “여름철 냉방시설이 없는 실내체육관에서 학생들이 혼련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상반기 해양오염사고 유출량 절반 감소

올해 상반기 해양오염사고 유출량이 절반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올해 상반기 해양오염 발생건수는 22건(19%) 증가했으나 기름 등 오염물질 유출량은 오히려 감소(74.3kl, 51%)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오염물질이 크게 감소한 것은 사고 초기부터 사고 관계자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오염물질 유출과 확산을 방지했기 때문이다.

다만 관리가 취약한 어선·기타선 등에 대한 예방활동의 강화에도 사고발생 건수가 여전히 높아 안전조치 미이행 선박에 대해서는 관리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인별로는 유류이송 작업 중 유출 등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53건으로 전체 약 8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침몰·좌초 등 해난사고가 뒤를 이었다.부주의(53건, 88%), 해난(42건, 30%), 파손(27건, 19.5%), 고의(11건, 8%), 미상(6건, 4.5%) 등이다.

광주모 아파트 기계실서 불...주민 대피

24일 낮 12시15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지하 1층 기계실(보일러실 추정)에서 불이나 119에 의해 1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대부분이 대피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하실에 가득 찬 연기가 4층까지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연기가 빠지는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여제자 수십명 추행한 고교 교사 2명 영장

자신들이 근무 중인 고등학교의 제자들을 성폭적으로 추행한 교사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52)씨와 한모(4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여주시 한 고등학교의 2·3학년 체육 교사로 학생부장도 맡고 있는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체육수업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거나, 자신도 학생들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학교에 있는 한씨는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며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진수조사를 벌인 결과 여학생 20여명 이상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많아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음주 뺑소니 40대, 교통사고 조사서 들통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은 40대가 사고 직전 뺑소니를 쳤던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들통이 났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모(4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지상)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께 서울 동작구 대방동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남모(34·여)씨를 뒤에서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남씨를 들이받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박모(80)씨의 택시를 추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음주단속 현장을 피하기 위해 골목길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도로를 건너 뺑소니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씨는 정황을 살피다가 도망가면서 신호대기를 하던 박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로 남씨와 박씨는 각각 전치 8주, 2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16%로 측정됐다.

당초 이씨는 박씨 차량과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경찰에 진술하고 남씨를 친 부분에 대해서는 합구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이 뺑소니 접수를 받아 주변 CC(폐쇄회로)TV 등을 조사하면서 이씨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뺑소니에 대한 출석 요구를 받지 않고 정면이 저장된 블랙박스를 지우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한 정황도 있었다”며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망까지 가게 되면 뺑소니가 되니 우선적으로 환자에 대한 구조조치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 상사가 각목으로 직원 폭행...경찰 수사

한 중소기업 간부 직원이 같은 업체의 영업사원을 각목으로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께 화성시 장안면의 철거업체 주차장에서 패널업체 A사의 상무 B씨가 각목으로 같은 업체의 영업사원 C씨를 수차례 때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철거업체를 찾았으나 부하 직원이 C씨가 공사대금을 줄 수 없다는 철거업체 사장의 편을 들었으며 그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거업체 사장은 B씨가 C씨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C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신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가족처럼, 친구처럼 오래오래~
우리 결연 언제나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이 있습니다.
쓸때마다 즐거운 우체국 체크카드,
든든하게 힘이되는 우체국보험,
행복한 꿈을 주는 우체국예금까지
이제, 우체국에서 만나세요~

언제나 내곁에~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